

◆ 교회소식 ◆

1.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부터입니다. 공예배와 기도 모임과 목장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4.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슬기롭게 여름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5.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며, 기도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공예배 참석과 기도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 해외와 타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어려운 일이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지역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소식

생일 :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섬김 : 최재동 장로님이 아이스크림을 섬겨 주십니다.

◆ 온라인헌금 계좌 안내 ◆

재정부(농협 471-01-119147 드림교회)
 선교부(농협 355-0005-8058-53 드림교회)
 건축부(농협 355-0005-8059-93 드림교회)

◆ 새벽기도 제목 ◆

1. 월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 화 -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3. 수 -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4. 목 - 사명과 선교를 위하여
5. 금 - 일터와 건강을 위하여
6. 토 - 주일예배와 인도자들을 위하여
7. 아픈 성도들의 건강 회복과, 어려운 성도에게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 8월의 교회일정 ◆

전교인 여름수련회(7월 31~2일)
 기관별 월례회(30일)
 담임목사 휴가(30일~)
 중구시찰회(10일)

2026표어: 하나 되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빌 2:2-4)

◎ 8월의 표어 : 쉼과 휴양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드림교회

담임목사: 박명호

Rev. PARK MYEONG HO

부목사: 김순길 장로: 최재동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13번길 48

042)532-4004. 533-5445

주일오전 영광예배

오전 11:00 인도/박명호 목사
경배찬양 ----- 찬양단과 함께
묵 도 ----- 인 도 자
성시교독 - 교독문 39(시편 95편)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93장
기 도 ----- 김옥순 권사
성경봉독 빌 225-30 - 양승미 권사
비전선포 ----- 비전 선언문
말씀선포 ----- 박명호 목사

성숙한 신앙인

찬 송 ----- 302장
헌 금 ----- 다 같 이
광 고 ----- 인 도 자
봉헌기도 ----- 박명호 목사
파송의찬양 ----- 축복송
축 도 ----- 박명호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새벽 은혜기도회

새벽 5:00 인도/박명호 목사 김순길 목사
말씀강론 1독 성경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

주일오후 찬양예배

오후 1:30 인도/박명호 목사
찬 송 ----- 311장 ----- 다같이
기 도 ----- 박종선 안수집사
성 경 - 대상 23:1-5 27-32 - 인도자
특별찬양 ----- 청년목장
설 교 ----- 박명호 목사
레위인의 직무
찬 송 ----- 502장 ----- 다같이
축 도 ----- 박명호 목사

삼일밤 진리예배

오후 7:30 인도/ 박명호 목사
묵 도 ----- 다같이
찬 송 ----- 391장 ----- 다같이
기 도 ----- 양승선 권사
성 경 -- 나훔 3:8-19 -- 인도자
말씀인도 ----- 인도자
나훔서의 교훈
찬 송 ----- 390장 ----- 다같이
축 도 ----- 박명호 목사

성령충만 금요기도회

8월. 한 달 동안
금요기도회는 자유롭게 합니다.

◆ 목양칼럼 ◆ 〈정 방향으로 진을 치자〉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서 조회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줄 서는 것이었습니다. 똑바로 줄을 선다고 해도 뻘뻘 뻘뻘 뻘뻘 뻘뻘, 앞뒤 간격은 다 틀렸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다 보면 줄이 조금씩 맞아 가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집합할 때마다 기준이 정해집니다. 기준에 맞춰서 좌우 정렬을 하다 보면 각 잡힌 병사들의 모습이 갖춰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과 삶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은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던 삶의 모습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에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깃발 아래에 있었고,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고, 문을 열면 보이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삶과 생각의 정방향이었습니.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늘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입니다.

그분의 발이 가신 곳과,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방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가 중심인 삶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 8월 예배 및 봉사위원 ◆

	기도위원	성경봉독	오후기도	특별찬양
1주	최재동	김경아	전교인수련회	
2주	이정희	김옥순	양승미	베드로목장
3주	김옥순	양승미	박종선	청년목장
4주	신두섭	이정희	박예찬	자원
5주	김순길	이은주	기관별	월례기도회
안내	신두섭 이미숙			헌금